

한국 여자 높이뛰기의 전설 김희선(金希宣)의 삶*

The Record History of Kim Hee-sun, the High Jumper

정범철(러시아국립체육대학교 박사) · 빙원철(한국체육대학교 부교수)*

Bumchul Chung *Russian State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 Wonchul Bi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한국 여자높이뛰기의 살아있는 전설 김희선(金希宣)의 생애를 통해 그녀가 높이뛰기 선수로 세계에 도전하기 위해 피나는 연습과 자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며 이룬 업적을 조명함으로써 체육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김희선의 삶을 주제화한 결과 첫째, 그녀는 어린 시절 몸이 매우 허약했으나 운동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면서 운동 특기자로 선발되어 육상 선수의 길을 걷게 된다. 둘째, 고교시절 한국기록수립 및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이화여대에 최초로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졸업 후, 86년 서울아시안게임 3위, 88년 서울올림픽 여자 높이뛰기 결승전 진출은 한국육상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한국선수가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하여 8위의 업적을 달성한 것은 한국 육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희선의 11차례 한국기록 수립과 전국체전 14연패의 위업은 한국 여자 높이뛰기 선수들이 넘어야 할 바(bar)이다. 셋째, 높이뛰기 선배 도호영과의 결혼 그리고 은퇴 후 뉴질랜드로의 이민 행보는 그녀의 또 다른 도전이 되었다. 2022년 현재 1990년 김희선이 세운 1m93cm의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김희선의 기록과 삶이 한국 여자높이뛰기의 지금까지의 역사였다면 앞으로 제2의 김희선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여자 높이뛰기 선수들의 현실과 노력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the achievements of Kim Hee-sun, a living legend of the Korean women's high jump, through the life of her high jumper, overcoming her limitations, and illuminating the achievements she made to challenge the world as a high jump athlete. As a result of subjecting Kim Hee-sun's life through in-depth interviews, first, she was very weak in her childhood, but as her health was restored through her exercise, she was selected as a full-fledged sports specialist and walked the path of her athlete. do. Second, when she was in high school, she was selected for the Korean record and national team, and she joined Ewha Womans University as a special student for the first time. After her graduation, she placed 3rd in the 86 Asian Games and her performance in the final in the women's high jump at the 1988 Seoul Olympics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athletics. In particular, the achievement of placing 8th in the 'final'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Olympics put the world's best in Korean athletics. The feat of winning 14 consecutive national championships was undoubtedly a cornerston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athletics high jump. Third, after her retirement, a new challenge through immigration to New Zealand became another challenge for her, and as of 2022, her record is still unbreakable. If Kim Hee-sun's life was the history of the Korean women's athletics high jump until now, it is expected that a second Kim Hee-sun will appear in the future.

Key words : Kim Hee-Sun, Woman High Jump, Korean track and field

* Bing, Wonchul(bing7@knsu.ac.kr)

I. 서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주경기장에서 큰 함성이 들린다. 그것도 전 세계 육상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여자 높이뛰기의 한국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희선은 1988년 9월 29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자신의 한국 여자 높이뛰기 기록 1m90을 뛰어넘는 1m92를 넘어 다시 한번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1986년 1m82의 한국기록을 수립한 이후 1990년 1m93의 한국기록까지 김희선은 자신의 한국 신기록을 11번 경신하였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김희선의 한국 신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은 그의 기록과 기량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한국 여자육상이 넘어야 할 바(Bar)이기도 하다.

그 동안 한국 여자 높이뛰기 기록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김영숙, 류재균, 장재관, 2015; 김혜영, 류재균, 이진택, 2012; 임종은, 최수남, 2017; 홍성인, 2016)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주로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여자 높이뛰기에 관한 자연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아직도 김희선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희선이라는 한국 여자 높이뛰기의 살아 있는 전설의 역사를 조명하는 작업은 한국 여자육상사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김희선을 뛰어넘는 제2의 김희선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현재 한국 여자 육상의 대표적인 인물사에 대한 연구로 정범철(2018a)의 「한국 여자 창던지기 이영선 구슬사 연구」와 정범철(2018b)의 「한국 육상 여자 포환던지기의 기록변천사」에서 소주제로 여자 포환던지기 백육자를 다룬 연구가 전부이다. 한국 여자 육상 인물사를 다룬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 여자 육상의 역사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 여자 높이뛰기에 관한 체육사적 연구로 정범철과 유덕수(2019)의 「한국 육상 여자 높이뛰기의 기록 변천사」가 있다. 이 연구는 여자 높이뛰기의 한국기록 변천과정을 첫 한국기록이 수립된 1929년부터 2018년까지를 경기기록사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여자 높이뛰기 기록사를 통해 한국 여자 높이뛰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자 높이뛰기 중심에 있는 김희선의 삶을 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여자 높이뛰기 기록사에 중심에 서 있는 김희선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 국가대표로 서울올림픽에 출전하여 한국 여자 사상 가장 뛰어난 성적인 올림픽 결승에서 8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안게임에서 2위 등 한국기록 11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14연패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녀의 기록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의 기록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희선이라는 한 육상선수가 어떻게 한국 여자 높이뛰기의 전설이 되었는지를 그녀의 삶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구술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0월 까지 대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뉴질랜드로 복귀 후에는 전화인터뷰,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김희선과 관련한 당시 신문자료와 사진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김희선의 삶을 조명하여 체육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김희선의 삶을 생애사적 분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1963년~1980년) 김희선의 어린시절을 조명한 ‘김희선의 성장’ 둘째, (1981년~95년) ‘국가대표 선수시절’ 셋째, (1995~2022년) 결혼과 은퇴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연구는 김희선의 생애사를 통해 한국 여자 육상 높이뛰기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체육인물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김희선의 성장

1. 어린시절 이야기 (1963-80)

김희선은 1963년 5월 13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 아버지 김인중씨와 경상도가 고향인 어머니 김미재씨 사이에서 태어난 김희선은 6남매 중 장녀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몸이 너무 허약해서 병원 출입이 잦았다고 했다.

이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몸이 너무 허약해서 매일 아침 애가 살았나. 죽었나, 숨소리를 확인 했었다고. 그랬던 애가 운동을 한다니 기적이라고. 저도 어렴풋이 어머니 등에 업혀 병원을 전전했던 일이 기억이 나요. 하루는 아픈 저를 보시려고 외삼촌이 방문하셨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 안에서 고무줄 놀이를 시키셨어요. 겨울이라 집 밖으로 나가서 하기에는 무리고 안에서라도 고무줄 같은 놀이로 체력을 단련해 보라고 하셨어요. 집안에서만 놀면 신체활동이 적어 더욱 몸이 약해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고무줄을 잡아주셨는데 한참을 뛰고 나니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피곤한데 훨씬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이 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게 바로 운동이 주는 효과였지요. 그 전에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는데 아마도 그 이후부터는 늘 밖에 나가서 살았던 거 같아요. 주로 줄넘기, 고무줄, 다방구, 같은 신체 활동이 많은 놀이를 하면서.... 학교에 다녀와서는 저녁때가 될 때까지 밖에서 놀았던 거 같아요. 덕분에 초등 학교 시절 내내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 학교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체육시간에 학교 대표로 나갈 높이뛰기 선수를 선발한다며 높이뛰기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서 높이뛰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고 한다. 매우 허약한 유년시절을 보내던 그녀가 미래에 국가대표가 되어 활약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했다. 아마도 그의 재능은 동네 놀이를 통해서 다져진듯하다.

그녀의 주된 놀이였던 줄넘기나 고무줄놀이는 높이뛰기의 특성에 잘 맞춰진 놀이다. 특별한 훈련을 한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선발된 것과 서울시 서부 교육청 대회에서 2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놀이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6학년 때 동일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서울 여자 중학교에 육상 특기자로 입학할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높이뛰기 선수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2. 체육 특기자로 중학교에 입학

육상 특기자가 원지 몰랐어요. 학비가 면제된다는 말에 그냥 자랑스럽게 여겼죠. 실은 그 당시 저희 집이 매우 어려웠어요.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조그마한 의류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친구 분 보증을 섰다가 잘못 되어서 공장도 잃고 집도 잃어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자랐으니 어떻게든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죠. 입학 전부터 동계훈련에 참가했는데 정말 힘이 들어요. 동네에서 하던 놀이와는 다른 차원이었죠. 어머니도 늘 걱정하셨죠. 몸도 약한데 힘든 훈련을 이겨 낼 수 있을까하고. 학교에 입학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하니 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이유로 많은 특혜도 누렸어요. 담임선생님들의 배려와 격려 그리고 반 친구들의 관심과 응원은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훈련은 주로 수업 후에 진행이 되었어요. 학교의 배려로 청소 시간은 빠질 수 있었죠. 수업을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어요. 훈련 시간에는 지금으로 말하는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훈련했죠. 몇몇 친구들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고 가끔은 신발 장 안에다 격려의 편지를 넣어 놓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도 참 낭만적이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덕분에 저는 힘든 운동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고 기록도 나날이 좋아졌죠. 중 3때는 서울시 대표로 소년체전에도 참가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서울시 서부에서만 놀다가 서울 전체로 제 무대가 확장 된 셈이죠. 전국대회에 참가해보니 제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가를 알겠더라고요. 같은 나이의 선수들의 노련함에 놀랐고 그들의 기량이 더 놀랐어요. 그들이 무엇이 나와 다른가 알고 싶어졌어요. 처음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관심이 생기더군요.

그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교우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행복한 선수 생활을 시작한다. 그 당시 교우들이 보여 주었던 관심과 응원은 지금의 아이돌을 따라다니며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친구들의 관심과 응원이 그녀를 성장시켰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녀는 중3 때 처음으로 서울시 대표로 선발되어 소년체전에 참가한다. 1.57m로 5위, 그다지 주목할 만한 기록은 아니었다. 그녀는 소년체전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서울 너머에 있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전국대회라는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한 도전이 서울 체육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시작된다.

3.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꿈을 펼치다

원래는 이화여고에 가고 싶었어요. 경기여고와 이화여고에서 스카우트하겠다고 선생님들께서 찾아오셨어요. 전 이화여고에 가고 싶었죠. 입학 전에 이미 이화여고에 가서 합동 훈련도 하고 있었던 터라... 하지만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면서 원서 마감일이 지나서 이화여고에는 갈 수가 없다고 체육 주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치 하늘이 노랗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요. 다행히도 서울체육고는 지금 가서 접수해도 된다고 하셔서 놀란 마음에 서둘러 서울체고를 찾아가서 원서를 제출했어요. 서울체고는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었죠. 그 당시는 꼭 군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감 선생님도 선배님들도 모두 무섭게만 느껴졌으니까요. 당시 오전에 4시간은 일반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각각 속한 운동부에 가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했어요. 육상부는 단거리, 도약, 투척, 장거리로 4종목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중학교 때와는 달리 또 다른 전문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서울체고의 높이뛰기는 당시 전국에서 톱을 달리고 있었죠. 여자 높이뛰기 선배인 현숙 언니는 제가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였죠. 서울체고 도약부의 지도 선생님은 정하준 선생님이셨는데 열정적으로 선수를 지도 하신 덕분에 도약부의 성적이 꽤 좋았어요. 체고에서 처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웠고 간단한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 등을 배웠죠. 이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니 같은 운동도 좀 더 재미있게 여겨졌어요. 전반적인 학교생활은 힘이 들었지만 기록이 늘고 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보람찼어요.

그녀는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전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체육 분야에 전문화된 특수학교의 커리큘럼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훈련하게 된 것이다. 체육 개론 수업을 통하여 기초적인 운동 생리와 운동 역학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기초 지식은 그녀가 높이뛰기라는 종목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고교 2학년 말에는 육상 국가대표 후보에 선발되어 태릉선수촌에 입촌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비록 정식 대표 팀은 아니었지만, 태릉선수촌이라는 장소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죠. 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들은 제가 따라 배우고 싶어 하던 동기 선수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결되었는데,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저보다 우수했죠.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본받을 점이 많았어요. 전 그들이 좋았고 따라 배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었어요. 특히 체력이 많이 달렸죠. 하루 3번 실시되는 훈련은 제가 따라 하기 힘든 강훈련이었어요. 왜 그들이 대표선수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40일간의 강화 훈련을 마치고 퇴촌하던 날 무척 섭섭하고 안타까웠어요. 좋은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대표 팀 선수들은 그다음 해에도 훈련이 잡혀 있었지만 나 같은 후보 선수들은 다음을 기억할 수 없었죠. 다행히도 그 다음 해에 후보 선수들 중 몇몇은 다시 선발되어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태릉선수촌에 숙소가 부족해서 우리 후보 선수단은 연

맹에서 마련해준 선수촌 근처 가정집을 빌려 숙소로 사용했죠. 우리는 거기서 출퇴근 하는 식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선수촌에 입촌해서 새벽, 오전, 오후까지 훈련하고 다시 촌 외 숙소로 돌아와야 했어요. 하지만 대표 선수로 있던 친구들의 배려로 쉬는 시간에 그들의 공간을 나누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들의 마음 씀씀이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태릉선수촌에서는 서영주 선생님께서 지도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시죠. 멀리뛰기 국가대표로 아시아 정상에 오르셨던 실력파 선생님이셨죠. 이론에도 강해서 그 당시 유명 대학에서 육상 강의도 하셨다고 들어요. 높이뛰기를 직접 하시진 않으셔서 기술적인 면은 자세히 지도해 주시진 못하셨지만 기본 원리와 영양 등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체력이 약한 나에게 높이뛰기에는 적임자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선수도 공부해야 선생님처럼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그 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죠. 그 강화 훈련이 덕분에 저는 1981년 1.77m의 새로운 한국기록을 수립하면서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어요. 너무 기뻐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가족 모두 기뻐했죠.



출처 : 조선일보, 1981.07.01 기사

한마디로 무늬만 국가대표였죠. 그저 외국으로 시합 간다니 들떠서 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때라 국가대표에게 주어지는 정말 특별한 특혜였죠. 시합에 대해서는 별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얼마나 높이 뛰는지도 모르고 갔으니까요. 도착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프로파일을 받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빼고 4명의 선수가 거의 1.90m 전후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 선수 2명, 중국 선수 2명이었어요. 저만 1.70m대의 기록이었어요. 시합은 뛰어야하고 기록은 하루아침에 쓰는 것이 아니니 결과는 볼 보듯 뻔한 거였죠. 정말 시합 당일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관중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스탠드는 꽉 차고 일본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들의 함성은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그 와중에 저를 호명하는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었고 도움닫기를 하려고 제 마크가 표시된 곳까지 뛰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차게 지면을 박차고 튀어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시합이 종료되기를 기다렸죠.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저는 일찌감치 시합을 마쳤는데 4명의 선수는 그제야 메달을 향한 각축전이 벌어졌어요. 앉아서 구경하는데 그 선수들의 기술이 너무나 신기해서 넋을 놓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끄러운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르고 돌아왔죠.

2. 최초의 이화여대 체육 특기자,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포기하다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화여대를 체육 특기자로 입학한다.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많은 명문대학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동부를 창설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화여대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2명의 육상 선수를 포함하여 총 8명의 운동선수를 선발하기로 한다. 그 두 명의 육상 선수 중 한 명이 김희선 선수였다. 그녀는 학업과 대표선수 생활을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교대를 가려고 했죠. 당시 우리 학교는 서울 교대에 입학하기가 쉬웠어요. 동일 계로 정원이 한 반에 5명이나 되었죠. 서울 교육대 학장님께서도 교대에 오면 운동을 하게끔 배려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원서를 써주지 않으셨어요. 학업 성적도 운동 실적도 학교에서 톱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었죠. 마침 그 때 이화여대에서 태릉선수촌으로 육상 선수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화여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만 하면 교직 과목도 이수할 수 있겠다 싶어 조금 돌아가는 거로 생각하고 이대로 결정했어요. 부모님도 이대가 좋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학교생활과 선수촌 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처음 체육 특기자를 받은 이대는 운동선수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결석을 하는 날에는 교수님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 중 다행인 것은 체육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실기 수업을 훈련으로 대체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마치고 선수촌에 돌아와서 오후 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또 밤에는 과제물 하라 시합 준비하랴 죽도 밥도 아니었죠. 그렇게 힘든 일상을 이어나

III. 국가대표 선수시절

1.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르다 (1981년)

김희선은 1981년부터 정식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국제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첫 시합은 일본에서 개최된 아시아 육상선수권이었다. 그녀는 그 시합에서 1.75m를 넘어 참가 선수 중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아직은 모든 게 부족한 풋내기 어린 선수에 불과했다. 그 당시 1, 2등은 일본 선수로 1등을 한 선수는 1.93m로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녀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다 무릎부상까지 겹쳐서 선수생활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맘을 먹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대학 선수쯤 되면 은퇴하는 분위기였기에 그런 결정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요. 그 당시 대표팀의 지도 선생님이셨던 서영주 선생님께서는 제가 학교에 다니고 싶어 대표 팀에서 나가려고 피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 계셨죠. 대표 팀을 그만 두려면 앞으로 절대로 대표선수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 무척 섭섭했지만, 선생님께서도 저를 계속해서 지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시겠다는 생각으로 저 자신을 위로하면서 각서를 쓰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무척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차 싶었어요.

부상으로 인해 대학교 3학년의 그녀는 국가대표선수 생활을 멈추게 된다.

3. 코오롱 상사 입사와 다시 국가대표가 되다

당시 김희선의 대학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운동선수로서의 병행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장님의 권유로 대학원을 놓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경제적 형편으로 코오롱에 입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대한민국은 86아시안게임 준비로 화끈 달아올라 있었죠. 육상 연맹도 육상 경기의 발전을 위해 최고의 신기록 포상금과 아시안게임 메달 포상금을 내걸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이대 학장님께서도 대학원으로 진학하길 바라셨죠. 학비는 학교에서 지원해 줄 테니 와서 조교로 일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집안 형편으로는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죠. 공부는 사치였어요. 학장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의 고등학교 코치 선생님이셨던 정하준 선생님께서 코오롱 상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곳에 정식 운동부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의 간청으로 우선은 정식 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었죠. 오전은 근무하고 오후에는 훈련하다가 86, 88 후보 선수단으로 선발되어 진해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었어요. 국가대표가 되지는 못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훈련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86아시안게임에 꼭 참가하고 말 것이라는 결심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죠. 하루하루를 온전히 나를 담금질하며 정말 전력투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살라고 하면 자신 없어요. 다행히도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노력의 결실을 얻자 더욱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6년도에만 한국 신기록을 3번이나 경신했죠. 무려 8cm나 경신했으니 저도 주변 분들도 다 놀랐지요.

4. 1986 서울아시안게임과 기록행진

전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대표후보에서 다시 정식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태릉선수촌에 입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앞으로 다가올 86아시안게임으로 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외국도 아닌 서울에서 경기를 하고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될 텐데 저의 기록은 메달 권은 아니었거든요.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저보다 월등히 기록이 좋았기에 그 갭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줄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죠. 정말 필요한 테크닉과 체력 요소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제 스스로가 나의 능력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폈죠. 중국 일본 선수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지 찾아서 적어 보기도 했어요. 신장은 그들보다 10cm 정도 작지만 하체가 비교적 길어 무게 중심이 높은점,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시합이라 몸의 컨디션닝에 중요한 요소인 기후나 훈련 환경이 나에게 매우 익숙하여 유리하다는 점, 식사나 영양 관리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최고 기록은 많이 떨어지지만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점 등 한눈에 들어오는 나의 장점들을 읽어보니 해볼 만한 시합이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전 상대와 싸우지 않고 나의 기록을 경신하는데 집중하자는 나만의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인지 시합에서 훨씬 저 자신의 경기력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상대방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었죠. 저는 제 기록을 3cm나 경신하여 1.89m를 기록하였고 일본과 중국 선수는 자신의 기록에 3cm 못미치는 기록으로 1.89cm를 뛰었어요. 비록 등위는 밀려 3위를 했지만 시합 내용으로 본다면 매우 자랑스러운 동메달이었어요.

그녀는 86서울 아시안게임에서 1.89m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한다. 1,2위와 동기록이었지만 순위 차로 밀린 것이다. 하지만 자신보다 높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과 경쟁해서 얻은 값진 결과였다. 그녀가 1986년도에 보여준 기록은 무려 1년 동안에 8cm의 성장이 있었으며 3번의 한국 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냈다.

5. 88올림픽에서 여자높이뛰기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동력으로 삼아 꾸준히 기록이 성장한다. 1988년 드디어 그녀의 육상인생 커리어에서 최고점을 보여주는데 88서울올림픽에서 보여준 그녀의 경기는 최고의 대회에서 보여준 결실의 결정판이었다.

88올림픽은 86아시아대회와는 또 다른 도전이었죠. 그 당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경기이니만큼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세계의 선수들과 겨루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죠. 그래서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한국 선수들에게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욕망과는 달리 세계의 벽은 높게 느껴졌고 저의 모든 잠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듯했어요. 결승 진출부터가 큰 장벽이었죠. 저의 최고 기록보다 2cm나 더 뛰어야 했으니까요.

올림픽을 앞둔 동계훈련이 정말 중요했죠. 그 당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그때까지 해온 훈련 이상의 것을 소화해야 했어요. 마침 그때 벨기에 코치 선생님을 초빙했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술적인 부분 몇 가지를 새로이 습득하게 되었어요. 물론 체력 훈련에서도 파워를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훈련 방법을 알게 되었죠. 외국 코치에게 훈련받은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벨기에 코치만이 높이뛰기에 특성화 된 코치로 여겨졌을 만큼 훈련 내용이 알찼죠. 정말 전심을 다해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김용기 코치 선생님께서도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도하셨죠. 동계훈련 중에 일본에서 개최된 실내 육상경기에 초청되었는데 체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기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출전했는데 1.91m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수상까지 받았죠.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기록이 없고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청신호가 켜졌죠. 드디어 7개월 후 올림픽 예선 통과 기록인 1.92m를 1차시기에 성공하여 결승에 진출하였고 다음 날 열린 결승에서 8위에 올랐죠.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기록이었죠. 몇 년간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나름대로 승리를 자축했어요. 올림픽 전까지 많은 사람의 기대와 응원을 받으며 훈련한 만큼 그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 정도면 이해받을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되었어요.



출처 : 조선일보, 1988.09.,30. 기사

IV. 결혼과 은퇴

1. 인생의 동반자



출처 : 동아일보, 1990.11.09. 사진

김희선은 1988 서울올림픽을 잘 마무리하고 그해 11월 높이뛰기 선배인 도호영 코치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 둘은 높이뛰기가 맺어준 인연이었다. 동아일보 1990년 11월 9일자 신문에 ‘스포츠부 부 가정생활도 금메달’이란 특집기사에 김희선, 도호영 부부의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렸다.

현역 육상선수 부부, 그것도 같은 높이뛰기선수로 결혼에 골인한 도호영·31, 김희선·28 커플은 남편과 아내로서 뿐 아니라 서로의 코치역할까지 하는 등 부부애가 넘친다. 전국가대표인 남편 도호영은 현재 과천시청 소속으로 그동안 아내의 명성에 가려 있었으나 체력이 허용할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한 뒤 지도자로서는 아내를 이기겠다고 다짐한다.

코오롱 소속의 주부 선수로 그동안 착실한 훈련으로 여자높이뛰기 국내 정상을 지키고 있는 김희선은 조만간 현역에서 은퇴, 가정에 충실할 계획이다(이재권, 1990)

김희선은 남편 도호영과의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대학 3학년 때 부상으로 대표 팀에서 나온 후 학교에서 공부하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특기자로 들어왔으니 시험에 나가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무릎이 회복 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수업 후 개인 훈련을 했죠.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특기자로서 책임을 다 한 후 운동은 그만 두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 여자 대학생이 선수 생활을 하면 고목나무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대학까지 졸업하고 운동을 한다는 건 주위에 더욱 웃음거리였죠. 그러던 중에 도호영 선배를 만났어요. 대표 팀에 있을 때 안면이 있긴 했지만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만나보니 높이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저처럼 정식 코스를 밟은 것은 아니고 독학으로 높이뛰기를 익힌 사람이었어요. 좀 괴짜다 싶었죠. 그 당시 나이키 회사 직원이었는데요 운동선수 생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외국 서적을 보며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책을 보기 위해 일본어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자극이 많이 되었죠. 이렇게 높이뛰기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좀 놀라기도 했어요. 전 비단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운동을 선택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죠. 그 때부터 함께 훈련하며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외국 여자 선수들의 평균 나이와 기록을 보여주며 아직도 꿈나무라며 격려해 주었죠. 외국의 선수들은 저보다 많은 나이에 세계무대를 활보하고 있더라고요. 전 한 번도 세계무대를 꿈꾼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 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졌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극진한 외조를 받으며 대표 팀 생활을 했어요. 1990북경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은퇴 할 때까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 때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혼자 밥해 먹고 회사 다니느라. 국가대표로 참가한 마지막 대회인 북경 아시안게임을 저에게 후원함과 함께 많은 아쉬움을 남긴 대회였죠. 모두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본 선수에게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어요. 그 아쉬움 때문에 아직까지 높이뛰기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남편이 높이뛰기 지도자로서 이진택 선수를 통하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 조금은 그 때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김희선과 도호영은 높이뛰기가 맺어준 인연으로 인생의 동반자로 발전하였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의지하며 높이뛰기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스포츠 스타 부부라 할 수 있다.

2. 마지막 한국 신기록과 은퇴 및 이민

김희선은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 이후 국가대표에서 은퇴했고, 1990년 6월9일 44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1m93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 기록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1994년 전국체전 우승(1m79)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출처 : 한겨레신문, 1990.06.11, 기사

1995년부터는 그녀의 남편인 도호영이 높이뛰기 대표코치로 발탁되면서 남편을 외조하고 가사 일을 하는데 몰두했다. 높이뛰기 국가대표팀을 맡은 남편이 지도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도 했다. 당시 남편이 가르친 이진택 선수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였고, 남편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자 이진택을 통해 이뤘던 것이다.

한번은 남편이 2002년도 아시안게임 전 뉴질랜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연과 공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고 했다. 2002년 겨울, 육상연맹의 지도부가 바뀌

면서 남편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인 이진택과 김태회를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지도자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한 찰나에 뉴질랜드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곳에서 스포츠클럽에서 남편과 함께 운동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한국에서와는 다른 운동시스템을 접했다. 당시 남편은 한국계 뉴질랜드 골프선수인 리디아고 체력을 담당하는 일도 같이 하면서 육상을 가르쳤고, 김희선과 도호영 부부는 함께 아마추어 육상 마스터즈 대회에 높이뛰기선수로 출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국을 떠난 뒤로도 한국이 그리울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과 관련된 특히 육상과 관련된 기사를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런 그녀에게 2021년, 코로나로 연기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높이뛰기에서 후배 우상혁의 활약은 매우 고무적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올림픽 결승에서 4위를 차지한 우상혁의 모습을 보며 한국 높이뛰기의 전설과도 같은 김희선은 후배의 성장을 보며 감격했다고 한다.

V. 결론

대한민국 육상 사상 최초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획득한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대한민국 육상의 가능성의 상징이자 발전의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자 육상 높이뛰기 종목에서는 김희선의 기록 1m93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전설로 남아 있다. 한국 여자 높이뛰기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 아직까지 살아 있는 전설로 남아있는 김희선의 삶을 추적해 보는 이 작업은 체육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높이뛰기 종목의 반성적 사유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 연구는 한국 높이뛰기에 공헌한 김희선을 대상으로 그녀의 활동과 업적을 조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김희선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몸이 매우 허약했으나 병문안을 온 삼촌이 안타깝게 여겨 조카가 건강해지길 바라며 줄넘기를 시켰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건강도 회복되고 운동능력도 발달하여 학교에서 높이뛰기 대표까지 선발되게 된다.

둘째, 그녀는 중학교에 운동 육상 특기자로 입학하게 되고 서울 체육고등학교에 시절에는 국내 1인자가 되었다. 고교시절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졸업 후에는 이화여대에 국내 최초 특기생으로 선발되지만, 부상을 겪으면서 국가대표팀에서 나오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원에 진학에 고민했지만 경제적 이유와 고교 은사님의 권유로 코오롱에 입사하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며 대표팀에 복귀한다.

셋째, 86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힘든 훈련과 도전으로 3위를 차지한 그녀는 점진적으로 기록이 발전하여 마침내 88서울올림픽에서 한국 육상최초로 여자 높이뛰기에서 결승 8위를 하며 한국육상의 위상을 높였다.

넷째, 1994년 전국체전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그녀의